



웰빙시대 산업보건의 역할

최근 의식주 모두에 ‘웰빙’이란 단어를 붙이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 웰빙 열풍세상이 되었다. 헌데 ‘웰빙’이 지금 넓고 빠르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웰빙에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로하스(LOHAS), ‘웰빙’과 ‘루킹(looking)’의 합성어로 건강과 아름다운 외모를 함께 추구하는 ‘웰루킹’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로하스는 건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Life 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약자다.

최근 주5일 근무제의 확대 이후 가정과 삶의 행복과 더불어 내가 일하는 터전에서의 진정한 정신적 가치가 우선되는 행복감이란 어떠한 것일까? 웰빙과 로하스 개념을 산업보건과 접목하자면 어떠한 실천방안이 요구되어질 것인가?

산업보건은 사업장의 생산 공장에 직접 나가 작업환경측정 혹은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등)과 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의 작업관련성 문제, 근로조건(작업의 강도, 작업의 양, 작업의 질 등)과 노동생리학적 문제와의 관련성, 근로자들의 인간공학적인 측면에서의 재해발생 문제 및 질병의 예방, 치료, 재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행하기 때



김 윤 신
한국실내환경학회 회장
한양대의대 산업의학과 교수
환경 및 산업의학 연구소 소장

문에 학제간 학연산관의 협동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보건 관리는 산업의 구조와 종류, 근로자의 구성, 또는 지역 경제사회의 특성 등 산업생태의 실태를 파악, 비용효과를 고려하여 산업보건에 필요한 목표를 갖고 효율적인 전개를 계획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산업보건

관리사업은 쉽지 않고 특히 중소 영세기업에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산업보건 분야는 과거 30년 전에 비하면 많은 변화가 있음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산업보건 분야에 대한 제도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 산업보건 인프라 면에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고, 산업현장 내에서 노사가 산업보건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대명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산업보건 사업들이 보건경제학적인 면에서 설득력 있게 사업주가 수용할 수 있게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한편, 일부 산업보건 사업은 계통적 접근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고 의사와 산업위생공학자 간의 공동작업도 적고 건강장애 요인과 환경 인자를 관련지우는 것도 애매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산업장에서의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인간공학과 정신사회적 인자에 관한 지식과 자문이 더욱 필요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협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향후의 산업보건 활동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업에서 수요자가 필요로 하고 우리 산업보건인을 노사가 수시로 찾을 수 있게 제반 여건들을 조성 및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보건 활동 범위는 산업 현장 근로자에서 모든 직업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산업보건인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이 생길 것이며 앞으로 국민 소득이 더 높아지면 산업보건인이 해야 할 일들은 더욱 많아 질것으로 생각된다. 근로자 건강의 개념도 이제는 근로자의 권리로 생각하게 되었고 질병대책은 예방에서 나아가 건강을 증진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변화였다. 새로운 IT산업의 발달로 정보화 시대 속에서 Techno-stress의 새로운 용어가 대두되었다. 따라서 산업보건의 모든 영역에서도 세계화시대 속에서 국제기준(ISO)이 마련되어 우리나라의 산업보건도 이 기준에 맞추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산업보건 문제를 기업이나 국가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소위 부담적 측면에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산업보건의 근로자와 국민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킴으로써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는 시각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산업보건에 대한 요구가 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정부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는 현재의 요구가 극복해 나가기 어렵다는 수동적인 생각보다 오히려 산업보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개혁하며 자기개발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보건 활동이 이제 산업안전의 완성을 위해서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가 된 것이다. 기계적·물리적인 안전사고 예방은 기술진보에 따라 근원적인 수준에까지 상당히 접근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향상된 시점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상태의 증진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웰빙과 로하스의 개념으로 접목시켜 고려하면, 산업보건 사업에 대한 정부의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산업보건인의 봉사와 희생적인 직업윤리가 더욱 확고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개혁과 변화만이 중시되는 한국 사회에서 산업보건 업무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련자 모두가 장기적인 안목에 입각해서 준비하는, 한 알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농부의 지혜로, 한 박자 느리게 사는 삶 속에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웰빙이 아닐까 생각한다. ☺